

2005年 8月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임 대 홍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conomic Education in Korea

2005年 8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임 대 홍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지도교수 김 안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年 4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임 대 홍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경제교육의 이론적 검토	4
1. 경제교육의 개념	4
2. 경제교육의 성격	6
3. 경제교육의 목표	7
III. 경제교육의 변천과정	10
1. 교수요목기	10
2. 제1차 교육과정기	12
3. 제2차 교육과정기	15
4. 제3차 교육과정기	18
5. 제4차 교육과정기	20
6. 제5차 교육과정기	22
7. 제6차 교육과정기	25
8. 제7차 교육과정기	27
IV. 경제교육의 실태분석	32
1. 외국 경제교육의 현황	32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	37
3.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	43

V.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49
1. 근본적인 개선방안	49
2.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50
3. 가정 및 사회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56
VI. 요약 및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목차

<표1> 행위주체별 목표	9
<표2> 교수요목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2
<표3> 교수 요목기의 사회과 편제	12
<표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4
<표5>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시간배당 기준	15
<표6>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6
<표7>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과목별 단위수	17
<표8>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9
<표9>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편제	20
<표10>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21
<표11>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과목별 배당기준	22
<표1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23
<표13>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24
<표14>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26
<표15>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27
<표16>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28
<표17>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30

그림 목차

<그림1> 경제교육의 문제 중심 학습 모형	55
-------------------------------	----

ABSTRACT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conomic Education in Korea

Dae-hong Lim

Advisor : Prof. Ahn-Ho Kim, Ph.D.

Major in Gener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human being in order to fill the desire of oneself acquires the resources which is limited efficiently and it consumes act, like this act is economic activity. It is active economically that bumped against to economic problem. it is necessary that opinion and decision of the depending on.

Us consuming and producing from the economic problem which is trivial is bumped against together from daily life the inflation, until the economic problem which unemployment, the exchange rate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 back is complicated lives in continuous inside of the economic activity which is various. The human being is born consequently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from it is participating to an economic activity, human being that also a reason to here, as the economic animal there is there is a possibility of seeing.

Compared to it acts but with today same information anger the economic activity from the industrialization society is various more and it is complicated and it changes it solves an economic problem with general common sense, there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it is difficult highly. Being consequently like this various, from the hazard which solves the economic problem which is complicated rationally the economic education certainly being necessary is a

possibility of doing.

The Korean economy of recent times accomplishes to trust defective own 4,000,000 person, the card delay becomes social problem and 1,000,000 person teenage people are being put in the actual condition which falls down with 'the financial ex-convict', the economic crime which relates with a this occurs frequently. Also Korea the basic principle of all remainder to pursue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elder brother disparity developmental strategy of growth putting first which cabinets to the political logic which goes to extremes and market economy equipped well and support only will not be able the bay knew the gain and loss against the market economy of economic units very to be meager, it was a basic limit of this Korean economy of this. Like this problems that it originates from tracing of economic education, is not the chart overstatement.

The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and the broadcasting company of Korea, begins the publishing company back recently and the many masses media importance every day economic education and necessity it propels the campaign where competitively it refers to an economic education, is developing the economic educational program which is various.

The economic education which the economic education executes but during that time from the school total schedule back excessively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slight. Also the economic education from the school is executed as one territory of the society and even so and it is come, until independent after now the economic education was if and they open a court and is reaching in today the economic education it goes round importantly but study hour, from big specific gravity hold it does not do it is the actual condition, professor method also the one sided strong will as ever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becomes stock price.

Currently by a 7th curriculum the economic education which is executed from the secondary school 10 grades which are last a grade of citizen common basic education process 'an economic' subject becomes accomplished from 11-12 grades which are one part and a selection center curriculum from social subject and there is, is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economic education which it learns into the student consequently in small quantity from 10 grades is a total one water service of school economic education.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consequentl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economic education and, it extends in the professor compendium flag since then change 7 and after trying to observe the change process of the economic education which opened a court after the actual condition of economic education it analyzes and proposing the problem point, In the future there is a place objective which presents the direction must be improved.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소비하려는 행위를 하게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경제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소비와 생산 같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경제문제에서부터 인플레이션, 실업, 환율, 정부규제 등의 복잡한 경제문제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산업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한국경제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카드연체가 사회문제가 되어 1백만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금융전과자’로 전락한 실정에 놓여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제범죄가 빈발하고 있다¹⁾. 또한 한국은 지나친 정치논리에 입각한 성장위주의 개발독재형 불균등발전전략을 추구해온 나머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빈약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한계였다²⁾.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교육의 경시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2004년 5월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자까지 포함해 397만3천541명으로 한 달 전의 391만8천507명보다 5만5천34명(1.4%)이 증가했다.

2) 1998년 이후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지표가 단적으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

최근 한국의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등을 비롯한 많은 대중 매체들이 연일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경쟁적으로 경제교육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이 전부 일정도로 극히 경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학교에서의 경제교육도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실시되어 왔으며, 사회과교육과정은 8·15 해방 직후의 교수요목기 이래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제교육은 중요도나 수업시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교수방법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7차교육과정에 의해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³⁾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의 ‘사회’과목에서 일부분과 선택중심교육과정⁴⁾인 11-12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과목이 있으며, 학생에 따라서는 10학년에서 조금 배우는 경제교육이 학교경제교육의 전부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수요목기이래 7차에 걸쳐 개정된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경제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기한 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과 실태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정기간행물의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등, 기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한 후 경제교육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목표를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1-10학년)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학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4) 고등학교 2,3학년(11,12학년)에서 교과에 따라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과정·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힌 것.

정리하였으며, 경제교육의 변천과정도 고찰하였다. 경제교육의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KDI, 교육부 등의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실태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문제점들을 토대로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 경제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Ⅱ. 경제교육의 이론적 검토

1. 경제교육의 개념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경제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는 것이라면 경제교육은 경제학 교육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학교육은 넓은 의미의 경제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주자문, 1992).

그러나 경제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지식을 과학으로 규명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은 그 교육의 대상, 목적, 내용에 따라서 그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우선 알아야 한다.

경제학이란 인간이 그들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및 물적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여, 그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이들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이태근 외, 1988).

반면,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은 단지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경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며,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부딪치는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8).

즉, 경제교육은 경제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비결을 알려주

는 소양을 위한 교육이다. 반면 경제학교육은 경제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수한 학문으로서 경제를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교육은 순수한 학문적 교육이고 경제교육은 경제 소양적 교육으로 경제학과 교육학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경제교육은 내용면에서 경제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교육학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내용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학교육을 실증적 측면이 강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경제교육은 규범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경제교육이 경제학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겠으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김종열, 1999).

이러한 경제교육을 학교경제교육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병모는 좁은 의미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과 교육의 일환’, 넓은 의미로는 ‘학교밖의 사회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이라고 정의한다(최병모, 1986). 임천순은 ‘학교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이해력 수준을 배양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복잡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제생활 속에서 접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수·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며(임천순, 1988), 이영기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 및 그 적응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이영기·윤용탁, 1980), 송대영은 ‘학생들이 경제 생활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한다(송대영, 1990).

또한 Symmes & Gilliard는 경제교육을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사고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M. Schug은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사고나 개인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식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였다. Saunders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지식의 이해를 통하여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NCEE, 1992)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사 결정의 필요성에서 생겨나는 경제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기본개념들의 이해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고력과 관련기능의 습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0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의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습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2. 경제교육의 성격

사회과 교육은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심리학, 역사학, 지리학 등을 어떠한 교육목적 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강환국, 1998), 이에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하며, 민주 사회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려는 교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은 경제현상을 학습 대상으로 하며, 그 체계를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적요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윤리에 더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교육은 공통필수 교과인 사회과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록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직감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 어려우며,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경제교육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며, 여러 가지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교육은 단순한 경제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하고,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지식, 경제적 사고력,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이 수행되게끔 요구된다(박준석, 2002).

이상과 같이 학교경제교육의 성격을 정리하면, 학교경제교육은 경제학을 내용으로 하지만 경제학과는 구분되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재구성한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 필요한 자질, 능력, 태도 등을 미래 경제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소양을 지닌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헌하는 것이다.

3. 경제교육의 목표

교육은 학생이 한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경험인지 판단하는 준거가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다.

우리는 소비자 및 생산자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고,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 시민이 경제체제와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개인적·공적 선

택을 해야 개인생활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민주정치도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체제 질서를 이해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시민의 양성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경제생활은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희소성이라는 근원적인 제약조건이 있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항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데, 경제교육은 이를 위한 사고능력과 가치관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지혜롭고 책임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저축자, 투자자, 투표자가 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사고 능력과 기능 및 올바른 가치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점은 많은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아담 스미스(A. Smith)가 말하는 경제인⁵⁾(homo-economicus)만이 아니라, 뒤르케임(E. Durkheim)이 말하는 사회인⁶⁾(homo sociologicus)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인이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취한다면, 사회인은 사회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목적 합리성을 지향한다.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경제교육이 어느 인간상을 준거로 해야 되는지는 자명하다. 마샬(A. Marshall)이 말하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경제현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지식과 타인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다⁷⁾. 이는 경제인과 사회인 모형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 지식과 윤리적 가치가 다 같이 중요하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10사람이 있으면 11가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지만 '경

5) 경제인(homo economicus, 혹은 경제적 인간)은 주류 경제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간으로,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합리적(이기적) 인간이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6) 사회인(homo sociologicus, 혹은 사회적 인간)은 경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사의 힘, 규범 및 습관의 요소를 내면화함으로써 행동하며 이에 의거하여 자신의 경제적 선택과 선호를 표출하는 인간이다.

7) 마샬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직관이지 결코 수학이 아니라고 하였다. 시장에서의 균형현상, 즉 수요와 공급의 힘이 맞아떨어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제현상을 지배하는 개념 경제원리나 법칙의 이해 증진,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경제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하는 태도나 가치관의 함양’등으로 그 기초를 잡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주체별 개인적인 목표는 <표1>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김진영, 2003).

<표1> 행위주체별 목표

소비자	예산제약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소비지출
저축자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가늠하여 합리적인 선택(여러 가지 저축수단 가운데서 기간 위험 수익률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
노동자	소득과 여가 사이의 합리적인 선택
국민	조세부담과 공공재 소비 사이에 적정 수준 선택
생산자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비용최소화, 생산수준을 통한 이윤극대화
정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세 부담수준과 배분을 결정, 정부지출 수준과 혜택의분배를 결정, 경기조절 정책의 시행

자료: 김진영(2003).

Ⅲ. 경제교육의 변천과정

학교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시발점은 교육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바로 이 교육설계도이며, 그 안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과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이 계획되어있다. 교육과정의 편성 내용이나 방향이 교육현장에서의 특정 교과목의 부침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며 그 교육적 파급효과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 학교경제교육은 사회과⁸⁾의 한 영역으로서 실시되어 왔으며, 사회과 교육과정은 8·15 해방 직후의 교수요목기 이래 제7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손학모, 1991).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이 각 학교에 직접 시달되는 중앙집권 형태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정이 지방분권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중심 교과과정 편성에 의해 일부학교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수요목기(1946-1954)

이 시기는 모색기로서 교수요목집이 발표된 1946년 12월에 공포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954년 4월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이어

8)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각 교과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서 진지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완성된 내용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을 1955년 8월에 제정하여 문교부령 제45호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으로 본다(강형구, 1990).

교수요목기라⁹⁾고 불리우는 이 시기는 ‘사회생활과’ 탄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군정 당국이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면서 미국의 사회과를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공민, 지리, 역사과로 분과되어 있던 사회과 관련 교과목을 통합하여 ‘사회생활과’라는 새로운 교과를 성립시킨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사회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정신을 익히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효율의 증진’과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목표로 출발하여 발전해 온 미국의 사회과가 비교적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유남연, 1995).

이 시기는 교과를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동심원 확대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학습을 지향하고 있어 생활 경험형 교육 과정에 접근하고 있다. 또, 지리, 역사, 공민, 직업 등의 여러 영역을 융합한 단원을 구성함으로써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고, 사회생활과가 교과의 중심적 위치에 서게 하였다.

‘사회생활과’의 목표가 진술되고 공민·지리·역사 분야별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사회생활과’ 목표에는 경제관련 구절은 없었으며 공민영역의 목표에 ‘국민경제생활을 완수하기 위하여 협동정신과 상호의존의 책임 관념.... 아울러 정치·경제·윤리·철학의 개념을 이해시켜서...’라고 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개념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표2>에 나타나 있다(김영우, 1998).

이 시기에는 사회과 총 18시간 가운데 경제편의 비중이 4시간 정도여서 사회과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표3>참조).

9) 한국의 사회과는 1946년의 교수요목기에 성립되었다.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미국 콜로라도 주의 8년 과정을 6년으로 압축한 것이었고, 교육 목적은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 사회 생활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함.이었다.

<표2> 교수요목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의 개념을 이해시켜 정확한 현실을 파악케 하고 장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도목표		제2학년(경제론) : 국민경제의 구조, 근로정신, 생산, 분배, 소비과정,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내용	2학년 (경제론)	1. 우리 국민경제 2. 국민생활과 노동 3. 생산과 소비 4. 유통 5. 분배 6. 우리나라의 산업 7. 재정 8. 사회개선 9. 자유경제와 통제경제

자료: 김영우(1998).

<표3> 교수 요목기의 사회과 편제(1946-1954)

구분 학년	공민	주당 시간	지리	주당 시간	역사	주당 시간
1	정치편(개론)	2	지리통론	2	인류문화사	2
2	경제편(개론)	2	인문지리	2	우리문화사	2
3	윤리철학(개론)	2	경제지리	2	인생과 문학	2

자료: 김영우(1998).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 시기는 1954년 4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문교부령 제35호로 이들 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부터 1963년 2

월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공포되기까지를 말한다(조도근, 1984). 제120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의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고 교과중심교육과정¹⁰⁾으로 불리었다(유남연, 1995).

제1차 교육과정 시기¹¹⁾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통합하여 일반사회 과목을 두고 1학년에서는 정치와 사회, 2학년에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3학년에서는 문화와 창조라 하여 사회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제와 사회에서는 생산과 산업, 생산요소, 기업, 수요와 공급, 가격, 화폐금융, 국민소득의 순환, 재정, 경기변동 등의 경제개념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김경근, 199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교수요목 시기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회과의 시간배당 기준표와 내용이 정해짐으로써 사회과의 위치나 성격이 비교적 확연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색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교육사조의 영향에 의해 생활경험중심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이 시기의 사회적 요구였다고 볼 수 있는 도덕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일반사회 목표에서 경제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면을 중심으로....’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내용면에서는 <표4>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원론에 가까운 것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서는 일반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를 모두 포함한 사회과의 비중이 전체 시수의 약 17.2%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제분야를 포함하고 있던 ‘일반사회’가 사회과 전체의 37%로서 다른 교과목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5>참조). 이러한 ‘일반사회’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에 따라

10) 교과중심교육과정(subject-centered curriculum) :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분야의 교과목 지식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형태.

11) 제1차 교과과정기는 초기사회과 시대이며,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이다. 1954년의 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의 교과 과정에 의한 사회생활과는 교수 요목에 비하여 지적 체계를 극히 존중하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과 함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어, 제1차 교육 과정은 교수 요목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도 전체 시수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경제가 비교적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경근, 1993).

<표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적 현실을 해명하여 그 당면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지도목표		없음	
구분		단원	주제
내용	1학년	1. 재정의 의미 및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1. 돈이 쓰이는 곳 2. 재정의 수입 3. 국가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 4.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5. 우리나라 재정의 불건전한 원인
	2학년 (일반사회)	1. 우리 생활과 경제 2. 생산과 산업 3. 생산의 요소 4. 기업 5. 우리나라의 산업 6. 수요 공급 및 가격 7. 화폐 8. 금융 9. 소비 10. 국민소득의 순환 11. 재정 12. 경제의 변동 13. 경제와 도덕 14. 실업문제와 노동문제 15. 사회보장과 사회사업 16. 경제문제와 국적 협동	

자료: 김영우(1998).

<표5>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시간배당 기준(1954-1963)

교과	필수·선택	과목	시간 배당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사회	필수	일반사회	105(3)	105(3)	35(1)	245
		도덕	35(1)	35(1)	35(1)	105
		국사	-	105(3)		105
	선택	세계사	-	105(3)		105
		지리	105(3)		-	105
계			210	245	210	665

자료: 김영우(1998).

주: ()안은 주당 평균 시수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 시기¹²⁾는 1963년 2월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된 때로부터 1973년 2월 문교부령 제310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고 동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1976년 2월 문교부령 제379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공포되기까지를 말한다(조도근, 1984). 이 교육과정은 일군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교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는 시각으로서 경험중심교육과정¹³⁾이라 부른다.

제3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공포된 ‘교육과정령’에 의해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목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주의적 교육사조를 전적으로 받아 들여 경험중심(또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성

12) 제2차 교육과정기는 사회과정착기이며 경험중심교과과정 시기이다. 1963년에 공포된 제2차 교육 과정은 교과목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전적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인 경험 중심 또는 생활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 교육 과정 내용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조직면에서는 합리성, 운영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13) 경험중심교육과정(empirical education) : 피교육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교육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는 교육이론.

격을 가진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① 자주성, ② 생산성, ③ 유용성을, 조직면에서 합리성을, 운영면에서 지역성을 강조하였다(김영우, 1998).

이 시기에 사회과의 편제는 우선 교과목의 명칭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뀌었고, 사회생활과 내의 반공·도덕 내용이 학교 교육 활동 전체에 관련된 ‘반공 도덕 생활’ 영역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이수 시간도 교과 과정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표6>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민주주의의 사회생활의 제반 원리와 기능을 이해시키고 이를 경제조직에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지도목표	일반사회 :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정신을 앙양한다.	
구분	단원	주제
일반사회	1. 국민경제 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경제의 성립과 발달 2. 국민경제의 순환 3. 생산과 국민생활 4. 물가의 변동과 경제생활 5. 국민저축과 경제발전 6. 국가재정과 국민소득 7. 경제자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조
정치·경제	1. 경제의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과 기업 2. 가격기구 3. 소득과 소비 4. 화폐 금융과 재정 5. 무역과 국내경제와의 관계 6. 경기 변동 7.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
	2. 우리나라의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의 구조와 특색 2. 농업의 현실과 장래 3. 공업의 현실과 장래 4. 종합경제계획과 그 달성의 길 5.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자료 : 김영우(1998).

경제분야는 필수교과인 ‘일반사회’와 선택과목인 ‘정치·경제’에 포함되었다. 일반 사회의 ‘국민경제생활’ 단원에서 근대 경제의 성립과 발달, 국민경제의 순환, 생산, 물가변동, 저축, 재정, 국민소득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에서는 ‘경제의 구조’ 단원에서 생산과 기업, 가격기구, 소득과 소비, 화폐금융 및 재정, 무역, 경기변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단원에서 산업구조, 농업과 공업의 현실과 장래, 종합 경제계획,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 일반사회보다 심화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경제’의 지도목표에는 경제적 현실을 이해시키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립적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표6>에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서는 이수 형태가 학년별 시간제에서 단위제로 변경되었고, 사회과 과목도 학교 사정에 따라 어느 학년에서나 신축성 있는 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과의 비중이 전체 시수의 약 17.9%로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표7> 참조). 그렇지만 경제분야에는 2단위 시수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시수의 약1% 정도로 1차 시기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김경근, 1993).

<표7>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과목별 단위수(1963-1974)

과목	단위수	공통필수	선택 필수	
			인문계	자연계
일반사회	4	0		
국민윤리	4	0		
정치·경제	4	-	0	
국사	6	0		
세계사	6	0		
지리 I	6	0		
지리 II	6	-	0	0

자료 : 김영우(1998).

주 : 1단위는 50분 단위시간으로 1학기 18주에 18단위 시간 이수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 시기¹⁴⁾는 1973년 2월 문교부령 제310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1973년 8월 문교부령 제305호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1974년 12월 31일 제350호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 공포된 때로부터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로 각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공포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종래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교육과정¹⁵⁾을 표방하였다. 각 교과에 내재하여 있는 지적 탐구과정의 체계 또는 조직을 특징으로 하여 학문 그 자체의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도근, 1984).

또한, 제3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 면에서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국가 사회적 규범·요구와 교육의 방법적 원리 면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과학주의적 요구를 조화, 충족시키려는 큰 이상 아래 개편되었다(강환국, 1988).

논리적 귀결로서 기본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하나 제3차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취지아래 여러 면에서 한국적 교육과정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요구와 학문적·과학적 요구의 조화라는 사회과 교육의 영원한 과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교육과정이라 하겠다(손학모, 1991).

이 시기에서는 ‘일반사회’ 교과목이 없어지고 ‘정치·경제’ 교과목에만 경제 관련 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목표를 보면,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서 경제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된 내

14) 제3차 교육과정기는 사회과의 토착화 시기이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시기이다. 제3차 교육 과정은 교육의 방향 면에서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 교육의 방법적 원리 면에서 학문 접근 방식을 배경으로 개정된 교육 과정으로, ‘국민 교육 현장’ 이념 구현이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 능력 등을 중시하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사조 및 학문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15) 학문중심교육과정 :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실·개념·이론·법칙 및 그 교과의 탐구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교육과정.

용은 <표8>에서 볼 수 있다.

<표8>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 경제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지도목표	정치·경제 :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 경제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정치·경제	1.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경제의 근대화 2. 가계와 소비생활 3. 기업과 생산활동 4. 시장과 가격결정 5. 국민소득과 경제순환 6. 통화와 금융의 역할 7. 물가와 국민생활 8. 재정과 국민경제 9. 국제경제와 무역 10. 남·북한의 경제 비교

자료 : 강형구(1990).

편제상 큰 변혁을 겪은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의 배경이 된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학문접근 방식의 원칙에 따라 국사, 국민윤리를 독립교과로 편제하였고, 사회과목의 명칭을 학문적인 분류법에 따라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로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 인문계의 경우 국민윤리를 6단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과가 37단위 정도를 차지하여 전체 시수의 약 17.4%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 교과목에서 경제관련 내용은 2-3단위 정도만 배정 받음으로서 지리나 역사의 1/4에도 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 비중 또한 전체 시수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김경근, 1993)(<표9>참조).

<표9>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편제(1974-1981)

교과	과목	단위수	필수 및 필수선택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인문	자연	직업
사회	정치·경제	4-6	4-6			
	사회·문화	4-6	택1 4-6	공통에서 제외된3과목 12-18		
	세계사	4-6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자료 : 강형구(1990).

주 : 과목별 단위수는 3년간 이수할 총 단위 수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 시기¹⁶⁾는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각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된 이후를 말한다(조도근, 1984). 1981년 이후 제5공화국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인간중심교육과정을 표방하였으며, 교육의 기본 목표를 국민 정신교육의 체계화, 과학기술교육 심화, 전인교육 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교육내용의 양과 질의 적정화를 강화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종래의 사회과는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놓으면서 자연과정과 직업과정 및 실업계열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골고루 학습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과목명이 ‘사회 I, II’, ‘지리 I, II’로 바뀌었고 각 과목의 I은 공통 필수 성격의 과목이고 II는 과정별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필수 과목은 사회 I, 지리 I, 세계사 과목 등이고, 일반계 인문·사회 과정은 사회 II, 지

16)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과의 성숙기(되돌려진 시계추)이며, 경험·학문·인간 중심 관점의 통합 시기이다. 제4차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학문 중심과 같은 교육 과정 관점상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리Ⅱ, 세계사가 선택 필수로 부과되었다.

이 교육과정 시기에 경제분야는 필수교과인 ‘사회Ⅰ’과 선택교과인 ‘사회Ⅱ’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회과의 일반목표에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Ⅰ’의 지도목표에는 국민경제의 순환과 물가, 재정, 금융 등의 기초 내용과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키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Ⅱ에는 사회Ⅰ에서 학습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표10>에서 볼 수 있다.

<표10>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지도목표	사회Ⅰ : 국민경제의 순환과 물가, 재정, 금융 등의 기초 내용과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킨다. 사회Ⅱ : 사회Ⅰ에서 학습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시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사회Ⅰ	1. 경제생활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2. 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3. 가격과 물가 4. 통화와 금융 5. 재정과 국민생활 6. 국제무역과 국민경제 7. 한국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사회Ⅱ	1. 국민경제	1. 경제생활의 발달과 경제문제의 본질 2. 생산, 분배, 소비 3. 국제경제 4.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5.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자료 : 강형구(1990).

이 시기에 있어 인문계의 경우 넓은 의미의 사회과 비중이 15.9%로 낮아졌다. 또한 경제관련 내용의 비중은 인문계의 경우 전체 시수의 1%정도, 자연계의 경우 0.6%에 불과하였다(김경근, 1993)(<표11> 참조).

<표11>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과목별 배당기준

교과	과목	공통필수		인문·사회 과정
사회	사회(I, II)	4-6(2-6)		4
	지리(I, II)	4-6(2-6)	택1	4
	세계사	2(2)		2

자료 : 강형구(1990).

주 : I 은 공통필수, II 는 과정별 선택과목임.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 시기¹⁷⁾는 1987년 문교부 고시 제87-7호 교육법 155조 1항으로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1990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가장 큰 변화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던 것을 ‘정치·경제’ 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

17) 제5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과의 성숙기이며, 통합과 지역화의 강조한 시기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제4차 교육과정의 보완 및 학문적, 국가·사회적, 개인적 적합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과정의 구성, 지역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구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그 동안 사회과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들, 즉 학습량이 과다하고 내용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지나친 분과적 내용 구성의 문제, 학교급별 특수성과 그 연계성의 미비 문제, 습득한 지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성 결여 문제, ‘탐구’를 지나치게 강조한 문제 등을 수정,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 내용의 정선, ㉡ 보다 통합적인 단원 구성, ㉢ 역사 영역 교육의 체계화, ㉣ 사회과에서의 가치·태도 교육 강조, ㉤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집단 생활에서의 참여 능력 강조, ㉥ 미래 지향적 교육 및 국제 이해 교육 강조, ㉦ 전통 문화 존중 및 계승 내용 강조, ㉧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신 반영, ㉨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등을 구성의 방향으로 하여 목표와 내용을 개선하였다.

제5차 사회과 교육 과정은 제4차 교육 과정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내용 수준의 조절(4학년 내용량의 축소 및 수준 조절), 과감한 통합에 의한 통합 단위 구성, 전통 문화와 관련되는 내용의 강화, 그 동안 분리하여 지도하던 역사 내용을 사회과 속에 융합하여 편성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1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지도목표	정치·경제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국민경제의 구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게 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지니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정치·경제	1. 정치경제 현상의 인식	1. 경제와 국민생활
	5. 가계·기업 및 시장	1.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2.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3. 합리적 소비 4. 합리적 생산 5. 시장과 경쟁
	6. 국민경제의 구조와 순환	1. 경제순환과 국민소득 2. 화폐와 금융 3. 정부와 경제 4.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7. 국민경제와 경제발전	1. 국제무역과 무역정책 2. 국제수지와 환율 3. 국제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 4. 국제경제협력과 경제발전
	8.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1.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성립과 발전 2.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황 3. 고용과 노사관계 4. 소득분배와 복지정책 5.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과제

자료 : 강형구(1990).

제5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교육 강화 시책에 따라 경제 과목을 신설하려 했으나 여건상 실현이 되지 못하였으며, 대신 사회 I 을 ‘정치·경제’ 과목으로 편제하여 경제내용을 대폭 강화하게 된 점이다. 또한 ‘정치·경제’ 이수단위가 6단위로 상향 조정된 것도 경제교육 강화요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내용의 대폭 확충과 더불어 경제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교양 선택 6개 과목 가운데 ‘생활경제’과목이 편제되고, 교양선택과목에 2단위가 배당된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이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공통필수 교과목인 ‘정치·경제’에 경제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그 교과목표로는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경제’의 지도목표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국민경제의 구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게 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능력을 지니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표12>에 나타나 있다.

이 시기에 있어 인문계의 경우 넓은 의미의 사회과가 34단위를 차지하여 전체 시수의 16.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경제 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지정한 학교의 경우 그 비중이 17.1%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있어 경제교육의 위상이 제4차 교육과정 시기보다는 약간 강화되었다(<표13>참조).

<표13>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교과	과목	공통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사회	자연	실업, 기타
사회	정치·경제	6(4)	-	-	-
	한국지리	6(4)	-	-	-
	세계사		4	4	4
	사회·문화		4	-	
	세계지리		4	-	

자료 : 강형구(1990).

주 : ()안은 실업계, 기타계 기준 단위수임.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8)

제6차 교육과정 시기¹⁸⁾는 지금까지의 사회과가 지녀온 편제상의 과행성(사회과의 주요 영역인 국사 영역의 독립 교과화 등), 학문계통의 존중으로 인한 통합교과로서의 미정착, 지나친 탐구방법의 강조, 지식위주의 학습으로 인한 기능·능력 학습과 가치·태도 학습의 소홀, 내용량의 과다 및 높은 수준으로 인한 교수·학습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사회적 요구의 변화, 학문적 요구의 변화, 교육적 요구의 성숙 등 세 측면의 요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한면희, 1994).

이 시기에서는 공통필수 교과목인 ‘공통사회’ 및 선택 교과목인 ‘경제’에 경제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그 교과목표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경제의 지도목표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가치 및 태도를 존중하고,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경제사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인이 되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14>에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 경제가 독립교과목으로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결코 경제교육의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표15>참조).

왜냐하면 경제가 선택 교과목이 됨으로써 이를 선택교과로 채택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김경근, 1993).

18) 제6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과의 본질 구현기이며, 쉽고 재미있는 교과 지향 한 시기이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과가 가진 본질을 보다 강력하게 추구하였다. 편제면에서는 통합 사회과로서의 틀을 갖추었고, 사회과의 성격 규정도 이루어져 교과 목적의 차원에서는 본질 교과, 교과 구조의 측면에서는 종합적·통합적 교과, 교수론적 차원에서는 방법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표14>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		
지도목표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가치 및 태도를 존중하고,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경제사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인이 되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내용	풍 사회	4.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	1. 경제적 자유와 책임 2. 경제성장과 경제문제 3.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4.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경 계	1. 경제생활의 이해	1. 경제문제와 선택 2. 경제생활과 경제체제 3. 경제활동의 측정과 경제정보 4. 바람직한 경제사회
		2. 시장과 경제활동	1. 가격과 경제활동 2. 기업과 경제활동 3. 시장과 가격결정 4. 시장의 형태와 특성
		3. 시장경제와 정부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2. 조세와 예산 3. 재정정책 4.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활동
		4. 현대 국민경제의 이해	1.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2. 경기의 순환과 성장 3. 화폐와 금융 4.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5.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1.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2.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3.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4. 기술개발과 경쟁력 5. 환경보호 6. 국제협력의 증진
		6.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과제	1. 우리 경제의 발전 2.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 3. 세계속의 우리 경제

주 : 김영우(1998).

<표15>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교과	공통필수과목	과정별 필수과목	과정별선택과목
사회	공통사회(8) 국사(8)	정치(4)	과정별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과목 중에서 선택(8)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4)	
		세계지리(4)	
교양선택			7개 과목 등에서 선택(4)

주 : 김영우(1998).

주 : 교양선택 7개과목으로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환경과학, 기타 등이고, ()의 단위는 매주 50분 수업기준으로 1학기(17주) 이수하는 수업량임.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

제7차 교육과정 시기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중심교육과정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신설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등학교는 국민공통 교육기간의 10학년과 선택교육기간에서의 11-12학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에서는 9학년까지의 학습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보다 심화된 수준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이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문제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또한 11-12학년의 선택교육기간에는 사회과 관련 1개 과목의 일반 선택과목과 9개 과목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를 살펴보면 <표16>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공통사회’ 과목이 없어지고 10학년 ‘사회’로 대체되었다. 현행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공통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사회과의 각 과목의 목표를 안내하고 통합적인 사회인식과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 등을 위한 공통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영역은 크게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나누어 교과서도 별도로 개발하고 단위수도 별도로 배당,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제6차 교육과정 상의 ‘공통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10학년 ‘사회’로 대체되고 공통사회 과목의 교과서가 일반사회와 한국지리의 별책으로 편찬되어 있던 것은 1책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0학년 사회의 내용구성은 지리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세계사 관련 내용을 통합하도록 구성하였다.

<표16>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사회과 단위배당 기준

교과목 및 단위		필수·선택	
사 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사회 10(국사 4단위 포함) -- 공통 필수(필수)	
	선택중심 교육과정	인간사회와 환경 (4)	-- 일반선택 과목(선택)
		한 국 지 리 (8)	
		세 계 지 리 (8)	
		경 제 지 리 (6)	+ 심화선택 과목(선택)
		한국 근·현대사 (8)	
		세 계 사 (8)	
		법 과 사 회 (6)	
		정 치 (8)	
		경 제 (8)	
사 회 · 문 화 (8)			

자료: 교육부(2000).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상에서 선택교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반선택과목이며, 다른 하나는 심화선택과목이다. 일반선택과목이 갖는 편제상에서의 성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학습은 정리하면서 심화선택과목의 학습을

위한 준비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일반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심화선택과목을 연결하는 교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각 교과별로 하나씩의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의 경우에는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이 이 같은 성격을 갖는 교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심화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선택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영역별로 2-4과목씩의 심화선택과목을 두고 있다. 지리영역의 경우에는 심화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과목이 개발되었으며, 역사영역의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과목이,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심화선택과목으로 개발되어 총10개의 과목이 있다.

셋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심화선택과목의 개설은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동일한 교실 속에서 함께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심화선택과목의 개설은 학습자들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사회’과목과, 심화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 등의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의 10개 단원 중 경제 관련 단원은 ‘7.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 경제의 기본문제와 경제현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국민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게 하는 데 두고 있으며, 국민소득,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의 기본적인 거시 경제 개념만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신철, 2000).

그리고 ‘경제’과목에서의 경제교육내용은 최소한의 경제이론의 학습과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단원1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해결’에서는 경제사회의 의미, 경제문제

의 해결방법, 경제체제의 변천과정, 경제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중용성, 합리적 경제선택, 바람직한 경제의식과 경제질서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단원2 ‘시장과 경제활동’에서는 시장경제의 특성,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과정, 시장실패와 해결방안, 시장가격 결정과정의 자료분석, 공정경쟁,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 등을 다루고 있다.

<표17>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경제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및 미래사회 예측 등 학습자의 주도적 경제학습을 지향한다.	
지도목표	국내외의 경제 환경 변화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구분	단원	주제
사회	7. 국민경제와 합리적선택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2.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방안 3.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경제	1.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의 해결	1. 경제 생활의 의미 2.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3. 경제체제의 변천과정
	2. 시장과 경제활동	1. 시장 가격의 기능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3.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1. 바람직한 소비 선택 2.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윤리 3. 책임 있는 재정운영
	4.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변동	1. 국민 경제의 흐름 2.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5.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	1. 국제 거래와 경쟁력 2.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자료 : 김봉우(2001)에서 재정리.

셋째, 단원3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서는 소비의 경제적 의의,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원리, 공공정책의 타당성 조건, 바람직한 소비활동, 기업윤리,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등을 다루고 있다.

넷째, 단원4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변동’에서는 국민경제의 순환과정, 총수요와 총공급, 경제변동의 양상과 문제, 경제안정과 성장정책, 국가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자세, 납세자로서의 의식, 물가안정하에의 동참 등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단원5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에서는 개방화 시대의 경제관계, 국제 경쟁력 향상, 통일한국의 경제적 과제, 인류공동체의 경제문제, 외제품 선별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김봉우, 2001).

이 시기에 있어 경제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사회’과목의 10개 단원 중 1개 단원, 10개의 심화선택과목 중의 ‘경제’ 1개 과목으로 비중이 줄어든 상태이며, 제6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선택 교과목이 됨으로써 이를 선택교과로 채택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IV. 경제교육의 실태분석

1. 외국 경제교육의 현황

1) 미국의 경제교육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시장경제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교육은 연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 정부의 소관으로 독립되어 있다. 교육자치 권한은 미국의 50개 각 주에 분산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주가 교육과정 결정과정을 약 16,000개 이상의 지방 학교구에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지배적인 경제교육 관련 형태는 고등학교에서 필수 혹은 선택 과정으로 '경제'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 및 경제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이은일, 2003).

미국은 학교경제교육 이외에도 다양하고 특화된 경제교육기관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¹⁹⁾는 각 대학과 연계하여 매년 약 12만 명의 교사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사들은 다시 70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기본적인 경제개념들을 가르치고 있다. 1995년까지 이 조직을 통해서만 60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경제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교사들로부터 1억명에 달하는 미국의 젊은 학생들이 경제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통계는 한국의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여문환, 2003).

미국에는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JA(Junior

19)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1949년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교육기관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미국 경제교육의 기준이 되는 '자발적 경제학 내용기준(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작성을 주도했었고 80여종에 달하는 선생님을 위한 경제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전국적 조직이다.

Achievement),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라는 3대 경제교육 비영리기관이 있다. 이 세 기관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제교육 기관은 JA이며 191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천 9백만 명의 학생들을 훌륭한 시장경제인으로 길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 청소년들의 경제의식은 매우 낮았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시장경제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전후 미국의 고성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는 판단 아래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JA프로그램을 미국의 전역으로 확산시켜 왔다.

DECA는 JA와 함께 미국 경제교육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1946년에 창립된 비영리 경제교육재단이다. DECA는 주로 마케팅과 청소년 창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왔다. 경제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JA와 달리, DECA는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매년 5월 DECA가 주최하는 창업경연대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1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참신하고 싱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여 오고 있다. 이것이 미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NFTE는 JA나 DECA와 달리 미국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1987년 설립된 NFTE는 뉴욕 할렘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학교 중퇴자나 소년원 출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에는 현재 전국 규모의 경제교육 기관만 하더라도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금융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전미금융교육재단(NEFE, Th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बैं킹, 보험, 신용관리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NEFE는 미국의 다른 경제교육 기관과 달리 ‘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미국 사회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 파산’과 ‘신용불량’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제교육의 역사가 긴 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과 특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제강국 미국을 이끌어 나갈 ‘건전한 시장경제인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²⁰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도 미국경제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방은행 직원들이 각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든가 학교현장의 경제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시키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선생님을 위한 경제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선생님의 경제지식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제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취지로 알려져 있다. 연방은행은 매년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경제토론회로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은행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재‘돈에 관한 모든 것(It’s all about money)’을 직접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미국 의회는 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경제교육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은 주(州)정부 교육기관이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 같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에 화답하여, 2002년에는 NCLB 법(No Child Left Behind Act: 어떤 어린이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비롯해 교육 혁신이 필요한 27개 분야

20)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여하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 발권은행이다. 1913년 발효된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창설된 이 은행은 이사회,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1976년에는 소비자자문회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은행이 회원 은행으로 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법정 한도내에서 회원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할인율을 검토·결정하고, 그들 은행의 예산을 심의한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각각 연방준비은행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9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 가운데 6명은 회원 은행들에 의해 선출되고 3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에 3억 3천 8백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州)정부 역시 경제교육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는 경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경제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예 고교 졸업장을 주지 않는 지역까지 있을 정도이다. 13개 주에서는 경제학 과목의 이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 16개 주는 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가르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여문환, 2003).

2) 일본의 경제교육

일본도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학교 경제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40여 년 동안 ‘재단법인 경제교육연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경제의 기본개념과 경제적인 사고를 철저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의 수준은 미국에 비하면 크게 뒤져 있다(여문환, 2003).

청소년 경제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청소년들이 경제 과목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일본의 각급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도 생생한 경제지식을 전달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과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데, 이러한 현실은 일본도 한국과 같이 학교 경제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융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문부과학성과 학습지도 요령 등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금융청(金融廳)은 금융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무료로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있는데, 교재의 특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역

할과 주식시장 구조를 그림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청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미국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지식을 몸에 익힌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증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새로운 교재의 제작, 보급과 함께 경제교육의 목표를 ‘저축’에서 ‘투자’로 바꾼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일본의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은 ‘저축’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사회 등 여러 과목의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금융, 경제교육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외국 경제교육 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경제교육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장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든가 정부의 적절한 경제정책 수립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제시민 즉, 시장경제인의 존재와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밑받침되어야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경제교육 측면에서도 세계 최강인 미국은 이미 법제화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주변 국가인 일본도 청소년 경제교육을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시장경제인의 육성에 국민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경쟁과 협조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청소년 경제교육의 강화가 결코 지나쳐버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

1) 고등학교 교수학습 현황

경제교육의 현황을 보기에 앞서 먼저, 고등학교 교수학습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입시를 위해서만 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나마 중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입시에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한다지만, 경제나 정치 등 주변 과목에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어려운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교사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이론을 학생들이 어떻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배울 수 있겠으며, 또한 심화선택교과목으로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제교육만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행 학교교육의 모든 과목이 입시위주에 치우쳐서 입시를 위한 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교육의 현황

학교 경제교육은 두 가지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경제교육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성장단계인 어린 나이에 받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선 체계적으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학의 구성원리를 따라서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 나이에 교육을 받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소성²¹⁾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든지 어릴 때 배울수록 지식

21)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 : 사람이 생활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하여 변화해 가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점토는 외부에서 사람이 힘을 가하는 대로 그 형태가 바뀌어진다. 이와 같이 사람이란 외부에서 어떠한 교육의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 고정화되어 가는

의 내면화가 잘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경제학을 제대로 학습하면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태도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경제교육이라 할 수 있다(김진영, 2003).

(1) 경제교과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경제교과서에 대한 불만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가 받은 지적들은 경제원론의 축소판으로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다,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틀린 부분이 많다, 현실 생활과 괴리되어 있다, 제한된 지면과 단색 인쇄라서 싫증난다 등의 지적이 많았다(교육부, 2002).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지면의 확대, 칼라인쇄, 생활·사례 중심, 탐구학습 등 다양한 형식을 담고 있어서 교과서의 개선은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나 논조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스럽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기업의 역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의 설명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 나온 교과서가 자료, 생활 중심으로 기술되어 친밀감을 더해주는 하지만 쉬워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교과서를 기술하는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주어지고 또 이를 근거로 제작된 교과서를 다시 국가기관이 검정하여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즉, 교과서 자체를 시장에 맡겨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질 개선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질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런 교과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평가제도가 없으면 교과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과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발달되어 가는 가능성 또는 변화되어 가는 가변성을 가소성이라 한다.

(2) 경제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

사실 경제교과서는 경제교육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충실하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교과서는 주로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교육내용은 보다 본질적인 경제교육의 문제를 담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경제교육 내용은 화폐와 금융부분이 빠져있다는 점 외에는 경제원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 내용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제교육 내용이 사유재산제도, 자유로운 선택과 영리추구(효용극대화 와 이윤극대화), 경쟁시장의 원리 등을 강조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경제윤리를 강조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경제교육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한 경제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용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의미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더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경제교육 시간과 과목의 비중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비중이나 중요도를 따지는 중요한 척도가 수업시간과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회과 내에서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7차에 들어 오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과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삼분법과 일반사회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네 과목을 수용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심화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의 아홉 과목 중에서 모두 8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경제지리, 법, 경제가 6단위로 되어 있다. 주당 2시간씩 한다면 네 학기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의 난이도, 취급되는 개념의 수, 이론이나 법칙 등을 고려해볼 때 심화선택 과목인 경제학을 제대로 수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마 선택한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통해 상당부분 교육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일반사회가

정치·경제로 되어 있던 시절에 비하면 개선은커녕 엄청난 개악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런 시간배정의 배후에는 경제 영역의 또 다른 과목인 생활경제가 일반선택 과목으로 독립되어서 생긴 현상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호기가 대학입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경제학은 소홀히 취급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시행되는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영역 중 심화선택 과목의 내용만 포함하며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교에서 입학점수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때 선택과목의 시수에 비례한 점수를 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경제교육 관련 자료

경제교육의 애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경제교육 자료의 부족이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경제교육 자료가 제작 및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교육 관련자료의 생명은 경제학 내용을 정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자료들은 경제개념이나 원리를 개념적으로 설명만 할 뿐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흥미위주로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내용 자체가 지리나 역사와 같은 영역보다 추상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몇몇 통계지표를 제외하고는 형상화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5) 수업방법

경제교육의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문답식 수업, 토론식수업, 협동학습, 모의역할놀이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지만 최근엔 문제중심²²⁾ 경제수업이 많이 거론되고

22)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 PBL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및 과제를 선정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안 및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적인 학습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조직하여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PBL은 학생들의 견해가 곧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며, 이 학습에서의 학습목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 PBL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통해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인으로서의 체질화에 두고 있는 만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

문제 중심 경제수업은 실생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지식은 물론 의사결정 능력이나 문제해결력 그리고 가치와 태도까지 동시에 바꿀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 특히, 문제 중심 학습은 교사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중심의 수업방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업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의 일변도의 수업이 일반적이다. 시간의 제약, 교사의 준비 부족,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제약으로 성과 높은 수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암기식 입시위주의 수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 시수도 부족하고 가르쳐야할 경제학의 내용도 과도한 실정이다.

(6) 교 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에서 교사는 중요하다. 실제로 학생, 교사, 교재는 교육의 3요소라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교사 본인의 경제학 소양부족이다. 교사들이 실제로 사회과에서 경제부분을 가르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나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교사 임용시험의 점수 배점을 보면 교육학과 교과학이 2:8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학은 다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사회과는 1(교과교육학)+4(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경제학의 부피나 분량에 비해 실질적인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외형적인 제약 외에 교사의 동기나 열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업무부담, 다인수 학급, 입시를 위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힘든

다른 어느 객관적 평가방법에 앞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성취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기록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외부인들의 관찰과 참여에 의한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수적인 혹은 보완적인 자료가 되어야 한다.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내용을 재구성하고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교사의 보상시스템 하에서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사회교사 자격증 외에 경제교사 자격증을 만들어 이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이나 보상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도입해 볼 만하다.

(7) 학 생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싫어한다. 특히 오디오, 비디오 세대인 요즘 학생들은 즉문 즉답의 상황을 좋아하므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제학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우려는 동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아마 경제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대상이 교육받을 동기유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경제선택은 가장 적으면서 교육청이나 학부모가 가장 많이 원하는 과목이 경제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경제학 기피현상을 이성을 가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더 높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입장에서 경제학을 강제로 이수하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경제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 않으나 법과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도 필수적으로 경제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점

한국 경제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교육정책 및 시스템 지원상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경제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뀐 채 실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암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의 방안을 찾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기회 부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어려워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경제 과목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경제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경제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의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프나 도표 위주의 설명이 많은데, 학생들은 그래프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일단 주눅이 든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교재나 자료들을 교사 스스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KDI경제정보센터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기회만 닿는다면 경제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97%를 넘었다고 한다. 그런 반면에 ‘실제로 교직 생활 중 단 한번이라도 경제교육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27.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장교사들이 경제교육 연수 기회의 제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상선, 2002).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기관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을 전담할 정부기관도 조직된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이 전 부였다.

2002년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빚어진 대량의 신용불량자 발생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미국의 JA의 한국 지부인 'JA코리아'등 외국 경제교육기관의 한국지부가 국내에 설립되었으며, 시류에 편승해 갑작스럽게 언론매체, 자치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경제교육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시민운동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지난 198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운동, 사회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경제교육 진흥을 위한 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3)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초·중·고 경제교육이 현실 체험보다는 이론 중심교육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교육의 장애물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라든가 외우기와 문제집 풀기라는 전형적인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경제 및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안정한 실정이라는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은 오늘날 경제교육 부진의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체험을 통한교육이나 실습도구를 이용한 교육방법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환경에서는 이것

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경제교육을 들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고등학교 입시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사회·문화(60%)라든가 정치(15%) 등 비교적 암기하기 쉬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린 결과이다. 학교현장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따르면, 경제과목은 우선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힘들고 수험능력평가에서 난해한 원리나 계산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경제과목은 피해가야 할 과목으로 꼽힌다고 한다(강태권·김진영, 2000)²³⁾.

셋째, 교사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제지식과 교육방법을 들 수 있다. 2002년 KDI경제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 스스로 ‘경제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교사 거의 전부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현행 교과과정 중 특히 경제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으로는 외환·국제경제 분야가 35%로 가장 많았고, 주식·채권 등 투자분야(32.5%)가 그 뒤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이론(17.5%)이라든가 소비생활(10%), 경제사상(3.8%)분야에 대하여 지식부족을 느끼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것은 교사들 스스로가 날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예를 들면,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이라든가 주식, 증권, 보험, 국제통상분야 등)에 대한 경제지식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대학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제(생활)교육 보다는 경제학교육에 편중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교육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소개와 학습에 교과목의 많은 비중이 할애되어 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을 동원하여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전통의 답습’이 지금까지도 고수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경제이론을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여 논리 정연하게 소개하는 교수 자신은 지적 유희에

23) 이 논문에 따르면 ‘경제과목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남학생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학문의 성격상 남성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능 과목의 분포상 차이는 시험의상대적 난이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과목 담당 교사의 강의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심취되어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은 점점 경제학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은 오늘의 한국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학 강의가 현실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론 따로, 현실 따로’라는 말처럼 대학의 경제학교육이 현실과 괴리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²⁴⁾.

다섯째, 기업 현장과 단절된 교육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대학졸업자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해가면서 회사에 필요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에 있는 것이지만, 기업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경제현실과 괴리된 대학의 경제학교육은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연계를 강화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그 동안 대학에 대한 아무런 지원 없이 가만히 앉아 대학에서 교육·배출한 인력을 받는 수준에 안주하고 말았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4) 가정 경제교육의 문제점

가정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0대 자녀들에게 ‘돈’문제를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유교적 영향이 강하게 남아서인지 어린 자녀들에게 ‘돈’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때의 ‘공부’속에 ‘경제공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공부는 경제현실이 아닌 경제이론에 대한 공부이기 일쑤이다. 요즘 아이들은 돈의 중요함을 모르고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하소

24) 2000년 들어 한국경제학회는 제1회 세미나(2000년 6월 16일)에서 ‘한국 경제학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경제교육을 전격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제2회 세미나(2000년 9월 15일)가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라는 테마로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경제학회가 1999년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신설, 경제학이 처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경제학교육에 대한 학계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을 하는 학부모는 많이 있지만,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다.

둘째로, 용돈의 부모의존도가 높고 경제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쓴다고 해도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낭비가 심한 청소년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철저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용돈의 부모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자립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한테 받는 용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자식들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한국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도 저하는 결국 자녀들의 경제감각 저하나 경제지식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로, 부모의 잘못된 경제교육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경제행동을 초래한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경제교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빈번한 사례이다. 매사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립성이 없는 청소년들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소비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에 끌려 다니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10대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록 생산활동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활동에는 엄연히 참여하고 있다. 적어도 소비생활에서는 청소년들도 일반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든가,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주장은 소비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김재원, 2003).

5) 경제교육 교사양성 대학의 한계

한국의 경제교육 교사양성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사회교육과 또는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개설 교과목의 비중만 보더라도 사회과교육 중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교육이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매몰되어 정치, 법, 사회, 문화 등 타 분야와 뒤섞여 다루어지고 있어서 일관된 체계성이나 뚜렷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결여된 상태로 실시되고 있다. 경제개념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교사가 아무리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과목을 어렵고 따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알기 쉽고 현실감이 뛰어난 경제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한편, 사범계열 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 예를 들면, 경제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시절 사회교육과에서 수학한 교사들보다는 경제학과 출신 교사가 경제학과목을 더 많이 수강하였을 수도 있으나, ‘경제학에 대한 교육’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교육’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 즉,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²⁵⁾.

요컨대 사회교육과에 개설된 경제교육 관련 교과목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일반 경제학과에서 교육하는 경제학 교과목과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말하자면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경제현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까지 함께 습득하고 있는 것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 양자의 차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25)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의 개념구분은 ‘제2장 제1절 경제교육의 개념’ 참조.

V.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1. 근본적인 개선방안

1) 교육여건의 개선과 동기부여

경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경제 또는 생활경제에 대한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은 학교수업을 받은 학생이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하고 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도 학교교육에서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수행할 인프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사설학원 없이도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적절한 동기부여와 같은 문제들은 의지만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며, 또한 쉽게 개선될 수도 있다.

2) 효과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의 마련

얼마 전까지도 학교에서 받는 경제교육이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으나 지금은 금융기관, 언론매체 등이 앞다투어 경제교육을 실시하려 하여 과잉공급의 소지마저 있다. 이런 상황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기관들이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에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듀넷(Edunet)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자료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신용교육도 경제교육의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KDI경제정보센터도 홍보와 교육을 적절히 통합하여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하고있다. 그 외에 몇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도움센터를 운영하면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거나 경제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직접 칼럼을 생산하며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경제관련 주장이나 칼럼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제소(clearing house) 역할을 한다. 교육학 관련 ERIC(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와 같은 기구의 상설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념을 전파하는 경제학도서관(<http://www.econlib.org>)과 같은 기관이 있다.

셋째, 골든벨이나 장학퀴즈 같은 고교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에 경제문제를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넷째, 대립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를 대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거나 책자로 발간한다. 이때 사전에 논쟁주제를 확정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동원한다.

다섯째, 경제학 전 분야는 워낙 방대하여 흥미를 잃기 쉬우므로 문고본 스타일의 소책자로 된 경제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여섯째, 인턴 기회를 제공할 기업들과 인턴을 원하는 학생들을 연결하여 경제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활동 경험 없이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경제현장을 경험하고 수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1) 교과서의 개선방안

중·고교 경제교육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김재원, 2003).

첫째, 부교재 없이도 학교에서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집필하고, 아울러 검인정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검토하며, 나아가 교과서 분량을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충실한 교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부교재나 문제집 출판의 의존도가 큰 회사는 교재를 출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력이나 장비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교재 출판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기업들도 교과서 업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었다. 즉, 대기업의 경우 교과서를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보다는 최상의 교재를 만들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교과서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부교재 없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면 경제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심사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진로와 직업'의 경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상급학교 진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생활경제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절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생업과 창업이라는 절도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즉, 교육부에서 수많은 교재에 대해 일일이 포함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심사과정상에서 교재의 집필자(특히 출판사)는 심사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심사자가 집필자의 내용을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교과과정의 개편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는 과목의 수업배당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이들 과목을 수능시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의 기업간,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교육(경제, 생활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고등학생·대학생 모두 경제학이나 경제관련 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이해가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대 및 사범대학의 사회교육 전공자 대학생의 경우 경제학에 대한 필요 이수과목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2) 교육과정 개선방안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은 경제교육을 개선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 개편 취지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살려야 비로소 경제교육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김정호, 2003).

첫째, 학습 내용을 선별하여 깊이 있게 구성한다. 읽기 자료와 탐구과제를 많이 활용하여 학습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사실, 개념, 일반화를 추론하여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실용성을 지향해야 한다. 학습의 의미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학 개념을 연역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현실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보다, 실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둘째, 내용 요소는 우리 사회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선정해야 된다. 현실 경제 생활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위한 경제적 선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은 활용하되, 경제학의 추상적인 이론 체계 자체를 가르치는 경제학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와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토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추상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암기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제 현상에 대한 지식의 내용은 경제적 사실, 개념, 일반화의 체계를 고려하여 과학적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경제적 가치 문제는 가치갈등, 가치 분석, 가치명료화 과정 등 가치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문제중심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은 문제 해결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합리적 대안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둔다. 경제에 관한 지식만 아니라 가치의 문제까지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내용에 따라 토론, 발표, 보고, 사례연구, 면접, 극화 활동, 현장 견학, 답사 등 체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올바른 경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한다. 한국 경제 현실과 문제와 관련시켜 각 경제주체들이 가져야 할 경제 윤리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행동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경제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에너지교육, 환경교육 및 통일교육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경제 과목과 관련된 사회과의 다른 과목들과 상호 보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방안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교수학습 상황에 구현하는 일은 교사가 할 몫이다. 교수학습은 ‘내용의 타당성과 중요성, 학습가능성, 적절성, 정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타당성과 중요성은 수업을 교육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준거이다. 타당한 수업은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 사회적인 문제 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수행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요성이란 학습자가 의미있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과배경 학문 논리 체계상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은 교과교육과 배경학문교육을 가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²⁶⁾.

26) 예를 들어,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일반균형이론이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론은 미시경제학 체계상 필수적인 순수 이론으로서 중요한 것이지만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경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학습 가능성은 수업 내용과 학습자의 학습 능력간의 관계를 말한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은 학습 가능성을 무시한 교사를 위한 수업이지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관점은 교사가 학생의 지적 발달 단계와 실제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단계에 맞는 내용을 가르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지식(先知識)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익혀 가는 지식의 축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교육 목표와 방법 및 평가를 일관된 논리에 따라 진행하는 정합성이 필요하다. 경제학 사고력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설명-암기식으로 하고, 사실에 대한 기억 여부를 평가한다면 정합성이 낮은 수업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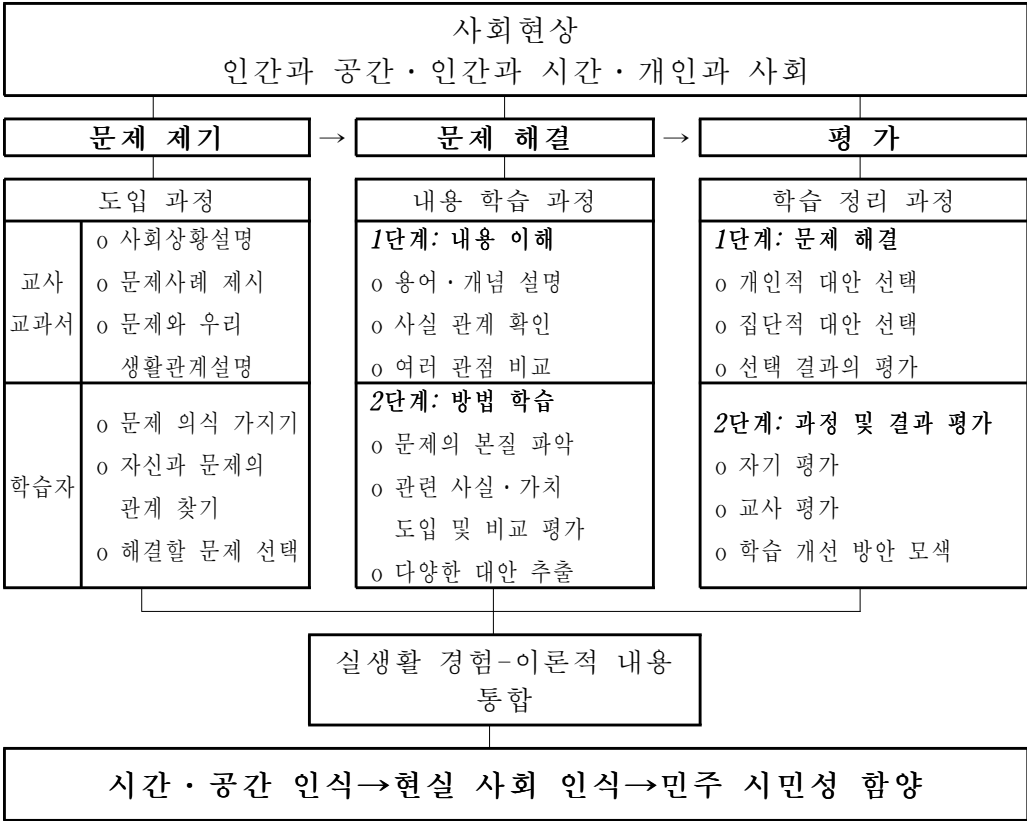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근접한 수업의 예는 문제중심학습모형이라 할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모형의 수업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소재로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 과정을 연계시켜 사회현상의 여러 부문에 대한 지식(사실, 개념, 이론 등)과 기능 및 가치·태도를 동시에 학습해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동태적 통합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이른바 지식 교육과 학습 과정 및 이론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해 나가려면 사회체제의 거시적인 면과 영역별 미시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중심학습법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다음 <그림1>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문제중심학습모형은 ‘도입 과정의 문제 제기, 내용 학습 과정의 문제해결, 학습 정리 과정의 평가’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제시코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사회상황을 설명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암시한 뒤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힌다. 이를 토대로 학생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며 내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사례를 선택한다. 어떤 문제이든지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

면 대안도 찾기 어렵다. 문제의식은 자신과 관련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학생은 문제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림1> 경제교육의 문제중심학습모형



내용 학습 과정은 내용(지식) 이해와 방법 학습의 두 과정으로 이어진다. 내용을 모르는 문제해결은 혼란에 빠지고, 내용만 알고 해결 과정을 생략하는 학습은 화석과 같은 지식으로 남는다. 교과서에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고 중요 지식을 설명하여 학생이 이를 이해한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 목표에 비추어 그 양을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학습 방법 학습은 바로 학생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학생이 직접 문제 사태를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 자료를 제시하여 간접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정보를 많이 실어야 한다. 각자 자기 주장대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았을 때, 그 대안을 서로 비교·평가하며 학습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학습 정리 과정은 문제 해결과 과정 및 결과 평가의 두 과정으로 이어진다. 문제 해결 없이 평가를 하는 것은 단순한 사례의 나열에 불과하며, 논의 된 개인적 대안 및 집단적 대안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 및 결과 평가 단계에서도 학생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교사가 학생 및 학습과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다양한 학습 개선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3. 가정 및 사회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이제 경제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에서는 용돈 아껴쓰기, 용돈 사용처 기입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소한 문제부터 자녀들의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부동산투기나 복권당첨 등으로 일확천금 하겠다는 사회풍토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근로의욕 형성에 장애요인이 됨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가정과 사회가 담당해야 할 경제교육의 기여도가 학교교육에 비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 경제교육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교재 개발과 경제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동기유발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사회과목 중 경제를 전공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교육을 전공하려는 교사들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교육 담당교사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유익한 경제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노동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기업원,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V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경제위기를 겪고 경제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등의 경제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므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은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밀려 경제 등 주변과목은 수업 시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 위주의 수업에 치중하여 큰 관심을 쏟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경제교육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경제교육의 문제점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과목이라 치부되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점이며, 대학에서는 경제(생활)교육 보다는 경제학교육에 편중해 있다는 점과 기업 현장과 단절된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경제교육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의 경제자립도가 낮은 실정이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을 무시한 저축 위주의 잘못된 경제교육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교육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사회교육과 또는 일반사회교육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사회과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매몰되어 정치, 법, 사회, 문화 등 타 분야와 뒤섞여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체계성이나 뚜렷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결여된 상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교육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경제교육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집필하고, 경제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경제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과정 면에서 실용성을 지향하여 실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경제교육은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므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중심유형의 수업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과 기능 및 가치·태도를 동시에 학습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저축과 절약 위주의 경제교육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소비, 용돈 벌기 등과 같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녀들의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사회과목 중 경제를 전공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경제교육을 전공하려는 교사들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경제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국민전체에 인지시켜 경제선진국으로서의 바람직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재권·김진영(2000). 한국 경제교육의 현상과 이해, 경제교육, 제17호. KDI경제정보센터.
- 강환국(1988). 사회과교육론. 학연사.
- _____ (1998). 사회과교육학. 학연사.
- 강형구(1990).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4).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_____ (1995). 고등학교 경제.
- _____ (1997). 사회과 교육과정.
- _____ (2000).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교사용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0-2004). 교육과정 해설-고등학교 사회, 경제.
- 국민경제교육연구소(1992). 한국경제교육의 실태 및 과제.
- _____ (1995). 선진국의 교과정책과 경제교과 편제.
- 김경근(1993).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국민경제연구소.
- 김병주·곽태원·김준원(1997).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김봉우(2001). 제6·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철(2000). 고등학교 수준별 경제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호(2002). 한국경제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 김영우(1998).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_____ (199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창간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우·박유영(1989). 우리나라 학교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논문집, 제19집. 숭실대학교출판부.
- 김재원(2002). 부교재 없는 교육환경 조성. 경제교육연구, 제8호. KDI경제정보센터.
- _____ (1993). 산업 및 근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경제교육의 개선방안-고등학교 경제교과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3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_____ (2003).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교육, 제22호. KDI경제정보센터.
- 김정호 (2002).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 경제교육, 제8호. KDI경제정보센터.
- _____ (2003).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방향과 과제. 경제교육, 제22호. KDI경제정보센터.
- 김종열 (1999).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영 (2003).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교육, 제23호. KDI경제정보센터.
- 김찬진 (2002). 사설학원 없는 교육환경 조성. 경제교육연구, 제8호. KDI경제정보센터.
- 박상선 (2002).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제교육의 방향. 초등사회과교육, 제14집.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 박종수 (2003). 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석 (2002).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 손학모 (1991).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3집.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송대영 (1990). 사회생활교육. 방송통신대학교.
- 신미숙 (2003). 고등학교 제6,7차 경제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남 (1998).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문환 (2003).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사례-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제22호. KDI경제정보센터.
- 이영기 (1981). 산업사회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제2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영기·윤용탁 (1980). 정치·경제교육론. 사대논총, 제2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은일 (2003).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효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근·정정도·조도근·최병모 (1988). 경제교육론. 교학연구사.
- 임천순 (1988).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생각한다.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자유기업센터(1997). 올바른 경제교육을.
- 조도근(1984). 사회과에서의 경제교육 고찰. 사회과교육, 제17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주자문(1992). 사회교육에서의 경제교육. 사회교육연구. 교육과학사.
- 최병모(1986). 미래지향적 학교경제교육의 목적과 기본 방향. 미간경제교육협의회 자료집.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교육개발원(1987). 학교경제교육 개편연구 종합보고서.
- _____ (1987). 경제교육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 _____ (1988). 학교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 _____ (1991). 경제교육 내용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한면희(1994). 사회과교육론. 갑을출판사.

<외국문헌>

- Banks, J. A. & Banks, Chelly A.M.(1999).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Addison Wesley Longman, Inc.
- Berelson(1962). *The Social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Harrcourtr Brace & World.
- Ellis, Howard s.(1961). *This is Economic*.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1, No.2.
- Kelly, T. E.(1986). *Discussing Controversial Issues: Four Perspectives on the Teachers Role*,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 Massialas, & Cox, C. B.(1966). *Inquiry in Social Studies*. New York: Macgrow Hill.
- Saunders, D. and Gilliard (ed) J.V.(1997). *A Framework for Teaching Basic Economic Concepts*. NCEE.
- Saunders, P., Bach, Q. L., Calderwood, J. D., Hansen, W. L. and Stein, H.(1984). *A framework for Teaching the basic concepts*. 2nd ed. New York : JCEE.
- Schubert, W.H(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Macmillan Publishing Co.
- Suglia, Anthony F.(1986). *Economic Education in Korea: Developing a Systematic National Program*, 대한상공회의소.
- Symmes, S.S.(1987). *Economic Education : Links to the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NCSS.
- Symmes S. Stowell 편(2000). 조병철 역. *Economic education: Links to the Social Studies*. 사회과와 연계된 경제교육. 문창사.
- William B. Walstad & John C. Soper 공저(1998). 조병철 역. *효율적인 학교 경제 교육*. 문창사.

(별지 4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반사회교육	학 번	2002817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임대홍	한문: 林大洪	영문: Lim Dae Ho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신우아파트 6동 403호				
연락처	019-621-4101 E-MAIL: train77@lycos.co.kr				
논문제목	한글 :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영문 :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conomic Education in Kore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5년 06월 10일

저작자: 임 대 홍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